



군산시가 2017년에 목표로 했던 300만 관광객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한데 이어 2018년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펼친다.

# 500만 관광도시 군산 시동

## 시, 관광분야 종합계획 추진... 시간여행마을·고군산군도 관광영역 확장

군산시가 2017년에 목표로 했던 300만 관광객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한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관광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면서 2018년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펼친다.

지난 28일 전면개통된 고군산연결도로와 동백대교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페이퍼포미의 이점 완료와 롯데아울렛의 준공 등의 인프라 구축은 경양동 철길마을과 연계한 동부권 관광거점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확정에 따른 민간투자 여건의 호기를 토대로 고군산군도 등 시 전반에 걸친 관광여건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한국관광의 별' 수상에 따른 시간여행마을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

할 것으로 보여, 2018년에도 군산시 관광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2018년도 지역 관광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방문율을 높인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으로 대내외에서 인정받은 시간여행마을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관광영역을 확장하고 1박2일 시티투어버스와 광역시 시티투어버스(전주~군산~부안~고창)의 운영, 광역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을 추진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군산관광의 한 축을 맡게 될 고군산군도의 폭발적인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숙박시설과 화장실, 관광종합탐방지원센터, 사위

장 등 관광인프라 대폭 조성 ▲섬 특성 살린 스토리텔링 상징물과 선유도홍보관 설치 ▲해변산책로 정비를 통한 걷기 명소길 개발 ▲포토존과 수변공원 조성으로 해양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배후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종합 관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은파관광호텔 조기 건립과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비응항 관광원 조성 등 미진사업 해소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군산시는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홍보와 SNS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고, 대규모 행사에는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추진해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제도·법령,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익산시가 2018년 일반 행정, 보건·복지, 환경·위생 등 총 5개 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 ◇ 일반 행정
  - 해의 체류시 국내주소로 신고
-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취득세 감면이 기존 10년(7년 100%, 3년 50%) 감면에서 15년(100%)으로 확대되고,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규정이 신설된다.
  - 그간 불가능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가능해지고,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할 때 부모나 지인 등의 주소를 국내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 등도 신청하면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동일하게 표기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된다.
- ◇ 보건·복지
  - 0~5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 신설되어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을 중단케 하거나 금연을 권고할 수도 있고, 가해자 세대 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도 가능하게 된다.
  - 또한 보훈수당 지급 시 적용되었던 익산시 1년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하위 90%인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 ◇ 환경·위생
  - 쓰레기봉투·하수도사용료 인상
- 해마다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 작년 5월 1단계 인상에 이어 쓰레기봉투 가격은 기존 20L 540원, 50L 1,350원 등에서 20L 800원, 50L 2,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20L 1,020원(공동주택, 음식점 등 63원/kg)에서 20L 1,380원(공동주택, 음식점 등 84원/kg)으로 인상되고, 기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설치를 다세대주택(원룸 포함)까지 널리 확대하여 시행한다.

- 또한 하수도사용료도 하수도사용료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5개년 인상 계획에 따라 가정용 1~10㎡/월 440원에서 550원으로, 일반용 1~50㎡/월 1,140원에서 1,4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 간식·교통·인원
  - 별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단축
- 전문건설업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관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시민 불편을 덜고, 일일주차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전국체전 대비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 ◇ 농림·축산
  - 동물복지 인증비 지원
-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림과 약정을 한 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초·중·고 무상급식은 그간 제외되었던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159개교 3만2,068명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확대를 위해 인증비 및 인증수수비를 지원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 단풍미인브랜드 5개 품목 연장사용허가 승인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갖고 5개 품목의 연장사용허가를 승인했다.

승인 신청은 쌀과 한우, 수박, 토마토, 복분자주 5개 품목으로 모두 브랜드 사용승인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김용만 위원장(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심의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 14명이 참석해 품목별 제안 등을 청취하고 열띤 논의를 가졌다. 위원들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정읍 대표 특산물로서의 가치 ▲전략 작목으로서의 가능성 ▲주민 소득 증대 기여

등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의했다. 이번 승인에 따른 사용 기간은 2020년까지 3년이다.

심의회원들은 "정읍시를 대표하는 5개 품목에 대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단풍미인 브랜드 발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무술년, 반드시 도약해야"

## 문동신 군산시장 새해 인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인사 드립니다. 무술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변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군산시를 향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정의 주체인 시민과 함께 품은 소망을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 환경, 관광, 문화, 교육, 복지 분야의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반드시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2018년! 어느 해보다 넘치는 열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익산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

# 익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완료

## 1월부터 본격 서비스

익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은 버스 노선의 운행 정보 및 도착과 출발 안내 등의 정보를 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2017년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 도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7억원을 더해 총사업비 11억6,000만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존 BIS시스템 구축사업의 고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대중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공단 본사에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타 도시에서 추진했던 자체 서버방식보다 사업비 및 운영비를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익산=장영원 기자

시는 시내버스 164대에 통합 단말기를 설치하고, 주요 간선도로(인북로, 동서로, 중앙로, 선화로, 인산대로, 무왕로)에 버스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70개소의 정류장에 모니터를 설치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승강장 모니터를 통해 노선별 차량 정보를 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뿐만 아니라, 정체 및 사고안내 등 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스마트 검색 등이 가능해 익산을 찾는 관광객 및 2018년 제9회 전국체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류소안내기(IFT) 1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구축해 시민 불편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 '백운화상' 탄생지 기념비 세워

## '불조직지심체요절' 편저자... 정읍 고부면 백운마을에

고려 후기 조계종 3대 선사의 한 분이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의 편저자인 백운화상 경한스님의 출생지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시는 세계적 가치를 지닌 불조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백운화상의 높은 뜻을 기리고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출생지로 알려진 고부면 백운마을에 '백운화상 탄생지 기념비(이하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는 높이 2.1m 폭 1.6m 규모로 화강석 좌대 위에 오석을 사용했고 비석 전면에는 백운화상의 발자취와 업적을 새겼다.

제막식은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내장사 주지스님, 대우스님 등 내빈과 마을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현지에서 있었다. 주민들은 "홍행한 분이 우리고장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기념비 건립을 계

기로 백운화상의 정신을 기리고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운화상은 호는 백운(白雲)이고 법명은 경한(慶韓)이다. 고려말 1288년(충렬왕 24년) 고부에서 출생했고 어려서 출가해 구도에 전념했다. 중국 절강성 호주(湖州)지역 하무산 석육청공화상에게 가르침을 전수받고, 인도 지공화상에게도 가르침을 받았으며 고려 불교문화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1374년(공민왕23년) 입적했다.

백운화상의 가장 큰 업적은 1372년 역대 선사들의 주요 말씀을 총록하여 '불조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것이다. 1377년(우정8년) 그의 제자들이 지금의 정주 흥덕사에서 이를 금속활자로 간행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그 문화적 가치를 공인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역 매아리

## 익산시 올해의 사자성어

### '비천도해(飛天渡海)'

익산시가 2018년 무술년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담은 사자성어로 비천도해(飛天渡海)를 선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의 '비천도해'는 2018년 전국체전을 비롯해 성장 동력 사업들로 지역 발전의 중대 변곡점을 맞이한 익산시가 이를 계기로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멀리 도약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2017년 호기를 이어가 2018년에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고 도시재생사업, 신항사 등 도시발전 지평을 바꿀 주요 현안 사업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안전보호용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신년회에는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인 이양 송현숙 선생이 익산시의 변영을 기원하며 시에 기증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정읍시보건의료, 노로바이러스

### 식중독 예방 위해 위생점검 나서

정읍시보건의료소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소는 겨울철에 급격히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어패류와 회 취급 식품 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3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식중독 예방진단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보건의료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와 보관 상태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상태와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의 위생 관리 ▲식품 취급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건의료소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해수 등이 채소와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다.

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군산시, 무너·선유·장자도

###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완료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지역에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고군산연결도로 공사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고군산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상수도관 설치를 도로공사 설계과장부처 발주처 및 공사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도로개통과 더불어 관로공사를 마쳤다.

이번 광역상수도 관로의 완공을 통해 여름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군산 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한층 더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도를 공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상수도관로 19.7km와 배수지(4,000㎡),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공사와 기존의 마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완료했으며, 전기공사와 제방안 설치 완료 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2018년부터 선유도 등 도서지역 각 수송기에 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고군산 4개 도서 하수관로

### 설치 등에 128억원 투입

군산시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 4개 도서(신시, 무녀, 선유, 장자도)에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총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수처리장 2개소(신시, 무녀도), 하수관로 11.4km, 배수설비 700개소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